



## 전기기기 국산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주)동남물산

한국전기공업진흥회  
정보조사팀 이진형



〈원내는 이병균 사장〉

1984년 비철금속 주물 및 전기소재분야 전문 제조업체로 시작한 동남물산은 당시 상공부로부터 고전도성 동터미널 개발업체로 지정 받아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국가산업의 동맥인 송·변·배전 및 광통신용 금구류를 개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사업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줄곧 남들이 넘보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온 보기드문 기업이다. 때문에 기술개발에 관련한 동남물산 직원들의 자긍심과 지명도는 어느 기업보다 높다.

동남물산 이병균 사장은 국내 전력용 기자재 업체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발전한데 대하여 “저

자신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로서 중소기업의 살길은 기술개발이라는 신념으로 창업초기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기술개발에 매달리며 국산화에 몰두했습니다.” 또한 “졸업후 20여년 몸담아온 한국전력에서 전력설비의 국산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기 개발의 부장직을 수행하면서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내 전력업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고 국내 산업 발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국산화에 있다는 것을 절감한 것이 국산화 개발에 전념하게된 직접적인 연유입니다.” 라고 말했다.



▲ 취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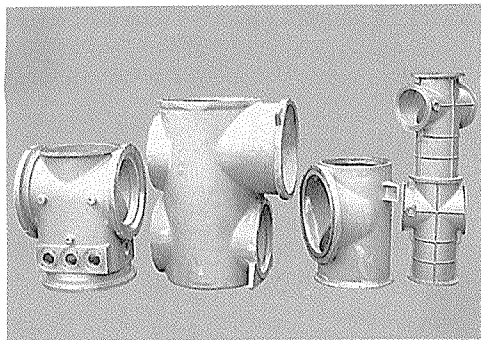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2년에 전자사업 부를 신설하고 최신 자동설비를 도입, 완벽한 품질 관리로 첨단 전자제품을 연결하는 각종 케이블, 와이어링, 하네스, 어셈블리등을 생산함으로써 전기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전환점을 이룩했다.

그리고 외국업체에 뒤지지 않는 기술개발을 위해 전체 매출의 10%이상을 꾸준히 R&D에 투자했으며 특히 1993년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고급두뇌를 대거 영입하는 등 활발한 운영으로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배전선로 고장감식기, GIS용 도체류 및 기타 알미늄외함을 전량 국산화하는 성과를 이룩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알미늄 외함뿐 아니라 도체류와 관련한 부품까지 전량 국산화하여 막대한 규모의 수입대체를 기한데 이어 현재는 제품 검수가 까다롭기로 이름난 일본의 후지전기 미쓰비시 등에 1백만불 상당량을 역수출할 정도로 품질과 기술력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중견기업이다.

이병균 사장의 이러한 업무추진력과 평소 정돈을 걷는 인품이 공인으로서 제반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주위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 올해 4월 21일 안성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17대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추대했다.

궁극적으로 동남물산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따라준 임직원과 주위의 성원 및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보답하는 뜻에서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의 직분을 봉사의 자리로 알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경제가 곧 국가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부강은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히는 이병균 사장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드럽고 원만하다」 「속 상한 일을 털어 놓고 싶은 상대」 「정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뒤로하는 영국 신사」 라는 평을 내린다.

특히 주물류는 일본 우수기업에서 탐낼 만큼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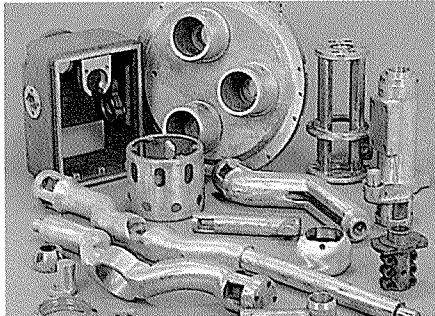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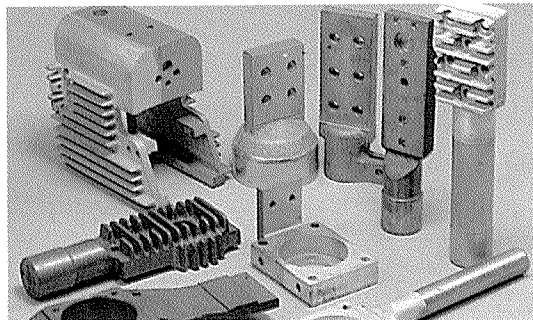


은 수준에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품질의 업 그레이드에 전직원이 매달리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년도에는 일본지역에만 목표한 수출 목표가 3백만불이나 된다.

또한 이병균 사장은 "기술개발이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최선의 길"이라는 기업신념을 굳게 밝히며 한국전력과 공동 개발한 '가스터빈발전소출력증대장치'와 전기연구소와 함께 개발중인 '고조파방지기가 앞으로 동남물산이 커가는 효자종목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따라 올해 회사 매출액을 작년보다 20%증가한 120억의 매출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동남물산은 앞으로도 이병균 사장의 개척정신 아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기술개발을 통한 전기기기의 국산화에 앞장서는데는 물론 끈임 없는 품질향상과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제품들이 속속 선보일 예정이며 신 영역을 개척해온 리더로서 세계 속에 우리나라 전기산업을 표명할 선두기업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



#### ■ 연혁

1984.	8	동남물산상사 설립	1995.	7	25.8KV GIS용 AL TANK EM마크 획득 (국립기술품질원)
1985.	4	한국전력공사 출입업체 등록	1995.	11	국무총리 표창 (우수자본재개발)
1987.	9	법인전환 (주)동남물산	1996.	11	ISO 9001/KSA 9001 인증취득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1988.	2	KS표시허가 취득 (ALUMINIUM 배선용 인장CLAMP)	1998.	6	벤처기업 지정 (경기도 지방 중소기업청)
1991.	8	서울사무소 개설	1998.	6	전기방식(防蝕)설비 (CATHODIC PROTECTION SYSTEM) 한국전력공사 등록
1993.	8	기술선진화 중소기업 지정(산업자원부)	1998.	8	345KV GIS용 AL TANK 개발
1993.	8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8.	10	전기공사업 제1종 면허 취득
1993.	9	유망중소기업 지정 (신한은행)	1999.	6	유망전력벤처기업 선정 (한국전력공사)
1994.	2	본사, 공장 신축이전 (경기도 안성시)			
1994.	12	25.8KV GIS용 AL TANK 개발			